



건강한 임신·분만을 위한 검사

시엘병원 산부인과 정효영 원장

## 습관성 유산, 부부 염색체 검사로 예방

35세 B씨는 결혼 후 바로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매번 임신 8주째에 태아의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로 계류유산을 2차례나 반복, 이를 부부는 상심이 커 자신감 마저 잃은 상태였다.

개다가 가사를 전달하면서 1시간거리 지방으로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생활을 병행해야하는 현실이 더욱 여성의 심신을 악하게 만들었다. 시댁의 권유로 약해진 자궁과 냉증이 있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보약도 먹어보고 마음을 더욱 단단히 잡고서 3번째 임신을 시도해 다행이 매번 자연유산이 초래됐던 임신 8주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임신 12주째 또 다시 계류유산 판정을 받아 습관성 유산 클리닉을 방문했다.

◇3회 이상 유산, 부부염색체 검사 도움돼=부부의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전문적인 상담 후 유산아의 염색체검사를 권유했다. 결과는 태아 염색체 이상소견(다운증후군)이었다. 물론 유산아의 염색체 결과는 50%정도에서 이상소견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염색체 분열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초래되기 때문에 다음 임신 시도에서 90%정도는 문제없이 건강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처럼 반복유산을 3회 이상 경험한 경우에는 부부염색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산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된다.

이들 부부의 염색체 결과에서 부인은 정상이었으나 남편의 염색체 일부가 비정상적인 전위(translocation) 소견을 보였다. 비록 이들 부부처럼 염색체 이상소견이 나올 확률은 3~5%로 낮지만 특히 부부 중 염색체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태아염색체 이상에서 다운증후군이나 터너증후군의 발생빈도가 아주 높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 정확한 염색체검사 후 정밀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자연유산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위험도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안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배란 유도후 임신에 성공해 임신 9주째에 음모막 검사를 시행해 바라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태아기형 진단을 위한 산전검사=부부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건 누구도 대신 못할 불만이 가진 사람이다. 매달 만나는 정기검진에서 둘이 손을 맞잡은 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은 담고, 산모수첩에 쓰인 그들의 덧글을 보고 있노라면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가슴 뛰는 즐거움을 느낀다. 아마도 산전검사부터 초음파, 기형아 검사와 당뇨검사, 분만전 검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초음파검사는 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검사법으로 실시간으로 태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고 실용적이다. 그러나 산모의 비만 정도와 태아의 자세, 양수과소증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모의 위험 정도에 따라 혈액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를 임신 1분기(10~14주)와 2분기(15~20주)에 시행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정효영 시엘병원 원장이 유산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반복 유산땐 태아 기형 빈도 높아

### 임신 15~20주 사이 양수검사 '안전'

### 주기적인 검진, 건강한 아이 출산

임신 1분기 기형아검사는 초음파로 복널미 투명 대를 측정하고 혈액으로 임신관련 혈장 단백질 A와 인간용모성 생식샘 자극호르몬을 검사하는 것이다. 2분기 기형아검사는 알파-태아단백질, 인간용모성 생식샘자극호르몬, 에스트리올과 인하빈A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임신주수와 태아의 수, 임신부 체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들에게 닥치는 불안감이다. 침습적인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산모에게서 이러한 기쁨을 일순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진단적인 검사는 굉장히 속도로 진보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침습적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부부와 아이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임신 1분기에서 시행하는 음모막 검사와 임신 2분기에서 시행하는 양수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음모막 검사와는 달리 양수검사는 임신 1분기에서 진단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 주로 임신 9~12주 사이에 시행하는데 대체로 조작의 일부를 제외해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임신 14주 이후에는 탈락막의 융합으로 조직이 채취되며 어려우므로 정확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질경부를 통한 시술 후에는 첫 24시간 동안 약간의 질출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양수검사는 임신 2분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산모 양수에 있는 태아세포에서 DNA와 염색체를 추출해 태아 염색체의 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양수검사는 주사 바늘이 초음파 유도하에 임신부 복부를 통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 주머니에 삽입돼 양수를 채취하는 것으로, 시술 후에 약간의 복부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부모한테 책임 있는 경우, 혹은 부모중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주로 시행한다.

최근에는 난임증 부부와 반복유산을 경험한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원인 불명의 반복유산을 3회 이상 경험한 부부에게 태아기형의 빈도가 늘어나므로, 산모 나이가 3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양수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다만 양수검사는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 양막과수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임신중기로 분류되는 15~20주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기 양수검사=최근 국내 유명대학 산부인과 연구팀에 의하면 임신 중기에 양수검사를 받은 단체임신 산모 4356명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임신 중기 양수검사 후 유산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기존 보고보다 임신 중기 양수검사가 안전하다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이는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2007년 산모 300~500명중 1명꼴로 유산된다는 연구 발표보다 낮은 수치다.

이처럼 임신 중기 양수검사는 태아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검사법이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산모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양수검사는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시행한다면 안전한 검사법이다.

태아의 염색체 이상은 태아의 건강과 향후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인이 되기까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다음으로 양수검사는 임신 2분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산모 양수에 있는 태아세포에서 DNA와 염색체를 추출해 태아 염색체의 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양수검사는 주사 바늘이 초음파 유도하에 임신부 복부를 통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 주머니에 삽입돼 양수를 채취하는 것으로, 시술 후에 약간의 복부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부모한테 책임 있는 경우, 혹은 부모중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주로 시행한다.

최근에는 난임증 부부와 반복유산을 경험한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원인 불명의 반복유산을 3회 이상 경험한 부부에게 태아기형의 빈도가 늘어나므로, 산모 나이가 3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양수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다만 양수검사는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 양막과수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임신중기로 분류되는 15~20주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기 양수검사=최근 국내 유명대학 산부인과 연구팀에 의하면 임신 중기에 양수검사를 받은 단체임신 산모 4356명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임신 중기 양수검사 후 유산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기존 보고보다 임신 중기 양수검사가 안전하다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이는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2007년 산모 300~500명중 1명꼴로 유산된다는 연구 발표보다 낮은 수치다.

이처럼 임신 중기 양수검사는 태아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검사법이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산모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양수검사는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시행한다면 안전한 검사법이다.

태아의 염색체 이상은 태아의 건강과 향후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인이 되기까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수완병원, KIA 타이거즈 부상선수 재활 책임

### 지정병원 협약 체결

광주수완병원(대표원장 고길석)과 기아타이거즈는 26일 오전 공식 재활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광주수완병원은 기아타이거즈 부상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고길석 대표원장은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의 부상은 기아타이거즈단의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며 "공식지정병원으로서 선수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길석 대표원장은 야구협회 부회장으로서 엘리트 야구선수들의 후원도 아끼지 않는 등 지역 야구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비타민D, 당뇨병 환자의 고혈압·우울증 완화에 도움

비타민D가 2형(성인)당뇨병 환자의 고혈압과 우울증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간호대학의 수 펜코퍼 박사가 비타민D가 부족한 여성 당뇨병 환자 46명(평균연령 55세)을 대상으

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그의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그의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